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943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28일

발 의 자 : 성백진, 이순자, 서윤기,
이현찬, 김정태, 김기대,
조상호, 김광수(도봉),
최영수, 김창원, 김영한,
김광수(노원) 의원(12명)

1. 주 문

-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통행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해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6월 30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발전은 물론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동부간선도로와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는 물론 지역 개발 효과까지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지

역적 특성에 따라 내부 통행이 많은 점과 요금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전례가 있어 지역 내 불만 여론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로건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이용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초 실시협약에서 약속한 요금수준으로 인하 해결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 나. 정 부 :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 다. 기 관 :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 동북부의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로서, 서울시 중랑구를 비롯하여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등 6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총 연장 50.6km인 도로이다.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하였고 그로 인해 수년간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동부간선도로와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2010년 실시협약 당시 약속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요금의 1.02배가 아닌 1.2배로 수준으로 책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로 건설 부담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금인상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은 물론 집·분산 기능도 병행하기 때문에 지역 내 통행이 많은 점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전례를 볼 때, 한번 책정된 통행료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통행하는 중랑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초 실시협약에서 약속한 요금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2017.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